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28호 [루게 제25106호] 주제104 (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7차 군무자예술회전에 당선된 중대군인들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7차 군무자예술회전에 당선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조선인민군 제549군부대, 제264군부대, 제233군부대, 제630군부대관하 중대군인들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서흥찬동지, 조남진동지, 럽철성동지, 한광상동지와 인민군장병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중대군인들은 여러 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인민군대를 최정예혁명강군으로 키워주신 불세출의 선군령장들의 불멸의 업적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군인들의 열화와 같은 충정의 마음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중대를 혁명적 동지애와 판별일치의 미풍이 차넘치는 병사들의 정든 고향집으로 만들어가는 나날에 꽃피어나고있는 자랑과 최고사령관동지의 사랑속에서 보람찬 군무생활을 이어가는 자기들의 복된 삶을 감명깊이 펼쳐보였다.



또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훈련명령관철을 위해 땀뻑은 군복이 마를새없이 훈련장을 달리고있는 일당백싸움군들의 전투적이며 기백에 넘치는 모습과 인민의 아들딸로서의 본분을 다해가고있는 모습도 잘 보여주었다.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키워주신 우리 인민군대의 영웅적기상이 살아숨쉬고 불이 펴 펴 이는 원수격멸의 복수의 선언, 강철의 억센 신념과 배짱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어 울리는 공연을 보면서

흥분을 누르지 못하였다. 선군조선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억척불변의 혁명적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칼바람마냥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인민군대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라는것을 힘있게 파시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중대군인들이 정책적대가 뚜렷하고 사상 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진행한 공연은 우리 당의 사상과 로선, 정책이 맥박치는 공연, 군인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보여주는 실감있는 공연, 화약내가 풍기는 전투적인 공연, 혁명적락관주의가 자넘치는 교양적의미가 큰 공연이라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면서 출연자들과 창작지도 일군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대예술 소조활동은 모든 군인들을 사상과 신념

의 강자, 고상한 정신도덕적 품모의 소유자, 계급의 전위 투사로 만들뿐만아니라 인민군대의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대예술소조활동을 통하여 군인들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당정책의 진수를 깊이 체득하며 계급의식을 칼날처럼 버리는것과 함께 혁명적락관주의와 풍부한 문화적소양을 갖추게 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는 이 사업을 전략적인 문제로 틀어쥐고 일관하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37차 군무자예술회전에 참가한 군인들이 앞으로도 훈련과 군무생활에서 보다 큰 군공

을 세워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출연자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안으시고 멀고 험한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공연을 보아 주시고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길에서 청춘도 생명이 기꺼이 다 바쳐 싸울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당 제7차대회를 로력적성으로 맞이할 일별안고 농사차비에 펼쳐나섰다

## 예견성있게 열어나가는 알곡증산의 돌파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있는 성천군인의 협동농장들에서 다음해 농사차비전투가 힘있게 다가쳐지고있다. 하루가 다르게 가을같이실적이 부쩍 오르고있는 농장들이 있는가 하면 지역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작업반들이 경쟁적으로 늘어나고있다.

이것은 다음해 농사차비전투는 단순한 실무문제에 아니라 당의 사상관철, 당정책옹위전투라는 관점에서 그와 관련한 모든 작전을 면밀하게 짜고두고 현장지도로 화선적으로 박력있게 해나간 군일꾼들의 혁신적인 일본배가 안인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 수호전인 전초선이며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축적방향입니다.》** 당 제7차대회소집에 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에서 접한 대로 모든 농장들에서의 난일타기실적은 폭발적으로 높아갔다. 이 기세로 나간다면 가을걷이를 지난해보다 거의 한주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고, 같은 때에 올해농사를 종파적으로 결속할수 있었다. 그럴수록 군일꾼들은 연속공격, 계속진전, 계속혁신해나갈 마음의 신드미를

성 천 군 일 군 들 의 사 업 에 서  
더 박작 조이고 다음해농사차비와 관련한 전투조직을 예견성있게 짜고들어 실현해나갔다. 진흥성분이 많은 포전들에 대한 가을같이를 특별히 중시하고 선형시켜 다수확의 담보를 마련할수 있게 한 사실을 놓고 보자. 올해농사과정을 분석해보는 과정에 일꾼들은 한가지 문제점을 포착하였다. 진흥성분이 많은 포전들에 대한 가을철도양관리만 질적으로 해쳐도 정보당 수확고를 훨씬 높일수 있다는 것이었다.

같은 물, 비료조건에서도 정보당 1.0%의 알곡을 더 거두어들이는 데, 사작형동농장들의 올해농사경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결국으로 이런 포전들이 적지 않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조건에서 그저 스쳐보낼 문제가 아니었다. 일꾼들은 한결을 깊이 들어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았다. 일반적으로 진흥당은 다른 토양에 비하여 알갱이 조각이 매우 치밀하다. 때문에 토양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농작물의 뿌리리더기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게 된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려면 가을철에 땅을 갈아엎어 토양구조를 농작물생육에 유리케 하도록 하여야 한다. 봄철에는 눈과 함께 땅이 녹으면서 더 짙어지기 때문에 트랙터가

포전작업을 하기 불리할뿐 아니라 토양관리를 한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해체될수 없다. 이런데로부터 이 농장들에서는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지난해 이런 포전들에 대한 논밭갈이를 먼저 선행시키는 원칙에서 가을철도양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해나갔다. 알곡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던 것이다. 반면에 일부 농장들에서는 가을같이실적에만 원성을 쓰면서 이 사업을 소홀히 한 결과 올해 더 거둘수 있는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다.

문제는 해당 농장들에서 긴장한 경제사정만을 앞세우며 이 사업을 실무적으로 대안해 있었다. 중요한 것은 군의 한해 농사를 당과 국가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꾼들이 다음해 농사차비가 단순한 영농사업이 아니라 당정책옹위전투라는 관점에서 그 성과적보장을 위한 작전을 면밀하게 짜고두고 끝장을 볼 때까지 실현해나가는 사상적각오가 부족하게 되었다. 일꾼들은 자책속에 심각한 교훈을 찾았다. 인민군대 지휘관처럼 당의 구상과 의도를 무조건 끝까지 가을같이실적으로 실천해나간 이들은 보다 면밀한 계획에 현장지휘를 화선적으로 박력있게 해나갔다.

우선 모든 농장들에서 진흥성분이 많은 포전들과 함께 포전 자리들에 있는 벼단과 낱알집은 반을 선행시켜 가을같이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가을같이전투가 진행되는 현장에 전투 좌자를 정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즉시 해결하면서 같이성이가 무조건 보장되도록 요구성을 높여나갔다. 특히 가을같이를 할 전과로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포전과 수확고차이를 가지고 기동적으로, 집중적으로 벌린 화선적정사업은 트랙터 운전수들에게 이 사업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시켰던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모든 운전수들이 농촌기계화 초병의 깨닫힌 망심을 지니고 가을같이시작부터 실적을 부쩍 높여나갔다. 그리하여 다음해의 농사과정을 과학적으로 담보할수 있게 되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심장마대에 조아 박고 아전형의 지휘선원이 되어 예측할수 없이 변하는 기상기후 조건을 립기응변으로 타개해나갈데 공평할만한 한 것이다. 가을철을 때때로 예견해 나가자 주지하고 대개은도 일정하게 높기때문에 생물활성비료를 생산하고 실천해나가는 이들의 일본배는 본받음만 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적으로 더욱 철저히

달보할수 있었다. 이것을 예민하게 포착한 일꾼들은 즉시적인 대책을 세워나갔다. 이에 따라 모든 농장들에 필요한 미생물을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책임지고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이 전개되었다. 각종 원료들을 충분히 확보해놓은 해당 농장들에서는 미생물이 보장되는 즉시 그것을 확대배양하고 생물활성 퇴비생산을 본격적으로 다그쳐나갔다. 결과 지역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도 큰 전진이 이루어져 다음해의 중요인 결실을 기대할수 있게 되었다.

그뿐이 아니다. 당과 심장의 말을 나누며 현장지도로 화선적으로 실속있게 해나간 일꾼들은 모든 농장들에서 살림집이건 공공건물이건 불을 때는 아궁이 있으면 매일 일정한 량의 구운 흙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작업반, 분조들에게서 분산과 집중의 방법으로 로력조직을 짜고들어 모판재로도 충분히 마련할수 있게 하는 등 다음해농사차비전투를 뚜렷한 목표밑에 작전하고 지휘해나갔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비상이 내려온 속도로 내달리는 시대의 벽찬 승리에 보증을 맞추며 다음해농사차비전투를 아전형의 지휘관처럼 작전을 실천해나가는 이들의 일본배는 본받음만 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적으로 더욱 철저히

##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에서

실리가 큰 농수평일이모습 개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 물결약형농법을 비롯 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생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소집되는 뜻깊은 다음해에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기 위해 농사차비로 들끓는 만경대구역 만경대남내 농장들에서 만경대남내 생년농장이 개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노도양관리기계를 불수 있다.

이 기계는 당과 바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연구진 박사 최길남동무가 근 20년간의 고심어린 사색과 탐구, 수십번의 현장 시험을 통해 마침내 성공적으로 연구개발한 농수평일이모습이다. 4각형모양으로 된 기본틀과 8개의 보습, 2개의 흙받밀개 보습 그리고 씨베장기로 되어있는 농수평일이모습은 여러 공정의 영농작업을 동시에 할수 있어 아주 실리적이다.

그 작원리리를 보면 앞줄에 배치된 4개의 보습은 쪼갯갈이를 하여 흙받을 바깥쪽으로, 뒤 줄에 배치된 4개의 보습은 모아갈이를 하여 흙받을 안쪽으로 옮겨 교체하는 방법으로 수평같이 한다. 흙받밀개보습과 접철로 연결된 씨베는 갈이하는 흙받을 부수르면서서 수평교루기를 진행한다. 마른상태에서 갈이와 수평교루기, 씨베치기를 동시에 진행되는 농수평일이모습의 경제적 효과성은 아주 크다.

올해 농수평일이모습을 받아들인 만경대구역 만경대남내생년농장의 경험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우선 많은 연유를 절약할수 있었다. 이 농장에서 농수평일이모습을 리용해본데 의하면 종전보다 60%의 연유를 절약하면서 더 많은 면적의 논밭을 할수 있었다. 다음으로 물결약형농법의 요구에 맞게 적은 물로 농사를 지을수 있어 효과적이었다. 농장에서 는 모내기시기에만 20정보당, 3정보의 물을 절약할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토양속의 물보유 능력이 2배로 높아져 농경제전기간 조변별로 물내는 주기를 5일로부터 15일로 늘어났는데 비농경에 지장이 없었다. 중요하게는 알곡수출을 현저히 높일수 있었다. 지난 시기에 리용하던 보습은 한쪽방향으로 흙을 뒤엎으면서 논밭을 하기때문에 이종된 흙

밭들을 수평으로 고루기 위해 물은씨베를 쳐야 하였다. 이때 물에 풀린 흙양갱이들이 크키벌로 가리였으면서 토양구조가 파괴되어 수확고를 더 높일수 없었다. 하지만 농수평일이모습을 리용하면서 토양구조는 그대로 유지할수 있어 노비생육에 좋은 조건을 지어줄수 있었다. 따라서 유묘아지비를 훨씬 절약해 정보당 알곡을 1~1.5t 수확할수 있었다.

누구나 실리가 크고 능률높은 농기계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 농수평일이모습에는 한가지를 연구해오 우리의 힘과 기술로, 무조건 우리 식으로 개발완성하려는 최길남동무를 비롯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연구자들의 높은 민족자존의 정신이 뜨겁게 어려있다. 연구개발과정에 실패가 거듭되었지만 대학당조직과 일꾼들, 집단의 아낌없는 방조가 있어 마침내 완성이 되었다. 만경대구역 만경대남내생년농장과 사동구역 덕동남내생년농장의 일꾼들과 기술혁신 조 생원들의 풍부한 경험도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 농수평일의 기본수단이며 나라의 만민제부인 토지를 보호하고 농촌경리의 종합적적계화 실현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농수평일이모습은 당에서 밝혀준 물결약형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더 많은 알곡생산을 위한 투쟁에 보다 큰 기여를 하게 될것이다. **박 영 진**

## 선차적으로 해야 할 사업

박천군 덕삼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꾼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박천군 덕삼협동농장에서 물 문제해결을 다음해농사차비의 중요항목으로 정하였다. 무엇보다도 물 문제해결을 적극 벌릴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올해 농장에서는 여러곳에 굴포를 설치하고 분조마다 우물도 뚫었다. 그러나 물량이 적어 그 덕을 크게 보지 못하였다. 물확보시설마다 세워놓았던 물이 모내기시작전에 모두 바닥났던 것이다. 결국 물이 매우 부족한 조건에서 농사를 지어나온 올해 알곡생산에서 더 거둘수 있는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다.

물확보투쟁을 적극 벌릴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올해 농장에서는 여러곳에 굴포를 설치하고 분조마다 우물도 뚫었다. 그러나 물량이 적어 그 덕을 크게 보지 못하였다. 물확보시설마다 세워놓았던 물이 모내기시작전에 모두 바닥났던 것이다. 결국 물이 매우 부족한 조건에서 농사를 지어나온 올해 알곡생산에서 더 거둘수 있는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다.

선차적인 사업으로 제기하였다. 모두가 지지해나갔다. **《일꾼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박천군 덕삼협동농장에서 물 문제해결을 다음해농사차비의 중요항목으로 정하였다. 무엇보다도 물 문제해결을 적극 벌릴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올해 농장에서는 여러곳에 굴포를 설치하고 분조마다 우물도 뚫었다. 그러나 물량이 적어 그 덕을 크게 보지 못하였다. 물확보시설마다 세워놓았던 물이 모내기시작전에 모두 바닥났던 것이다. 결국 물이 매우 부족한 조건에서 농사를 지어나온 올해 알곡생산에서 더 거둘수 있는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다.

곳보다 높다. 이것은 가을바다 밑으로 물이 흐를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지 않는다. 그의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일꾼들이 가을바다 밑으로 물이 흐를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지 않는다. 그의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일꾼들이 가을바다 밑으로 물이 흐를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지 않는다. 그의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일꾼들이 가을바다 밑으로 물이 흐를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지 않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계화를 하여야 농사를 할때 하면서도 수확고를 높일수 있습니다.》** 농업부문에서 기계는 무장장비와 같다. 농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일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배천군 금산협동농장에서 만든 자기능농기계를 놓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지난 9월 숙천군에서 진행된 제 4차 전국농기계전시회에서 창안자의 높은 평가를

## 물확보에 큰 힘을 넣어

안악군 읍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력사적인 당대회가 진행되는 뜻깊은 다음해에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 열의와 안락농업을 위한 사업을 짜고두고있다. 이곳 일꾼들은 올해 농사에서 얻은 경험들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다음해농사를 잘 짓기 위한 방도의 하나를 물원천을 확보하는데서 찾고 조직적사업을 실속있게 벌리고있다. 그들은 현장을 밝히며 물결들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땅이 얼기 전에 수천mm의 물결확과 구조물공사, 여러개소의 하천보막이를 진행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전투조직을 짜고두고있다.

이 기계는 농장기계화사업반 반장과 기술자들, 김체원 해주농업대학 기계연구소의 실장이 만들었다. 농수평일의 기계화수준을 높일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에 새긴 그들은 서로의 창조적제도와 힘을 합쳐 설계도면들을 완성한 장 그리고 기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기계를 본 사람들이 는 당의 사상관철, 당정책옹위전투를 벌리는 기계화전쟁의 선봉대가 되어나갔다. 이 기계는 농수평일이모습의 로력이 절약뿐만아니라 기계를 적게 쓰면서 여러가지 농사일을 할수 있다.

현장을 밝히고 전투진지도 먼저 차지하는 여기에 전투승리의 담보가 있다는것을 명심한 일꾼들이 단결을 지고 앞장에서 대충을 이끌어나가고있다. 지금 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력사적인 당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할 열의와 열정을 높이고있다. **전 명 일**

# 분별없는 대결망동을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담화

연평도포격전발발 5주년을 계기로 남조선에서 또 한차례의 반공화국대결망동이 벌어졌다. 11월 23일 남조선공화국은 괴뢰군부호전행들을 동원하여 서해연접수역에서 무모한 포실탄사격훈련을 벌려놓았다. 우리 서남해안 방위대의 별적의 기계와 보복용어 두류의 비록 우리측 수역에 대한 포실탄사격은 권위하였지만 가장 인민한 서해 5개섬수역에서 사격놀음을 벌려놓았다는 그자체가 동족대결을 노린 가장 악랄한 군사적도발이며 5년전의 참예를 당차한 무모한 불장난이었다. 더우기 서울 《통산전경기년판》앞에서 벌려놓은 그 무슨 《5주기 추모행사》라는것은 또 하나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이었다. 여기에는 남조선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당국자들과 합동참모본부의

장, 육, 해, 공군참모총장 등 정계와 군부호전행들이 대거 출어되고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관까지 참가하였다. 연평도포격전을 도발한 저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사죄함이 없이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황당무계한 도발적망동이 계속 울려나온 이 《행사》는 사실상의 반공화국대결망동이었다. 격분을 금할수 없었던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우리의 신성한 공화국기를 마구 찢어버리다 못해 나중에는 우리의 최고존엄을 훼손시키는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천법망을 불망종짓들도 꺼리낌없이 자행한 것이다. 지어 어용매체들을 동원하여 지난 연평도포격전때 저들의 포사격에 의해 우리 군대가 10여명이나 사망하고 수십명이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는 황당무계한 거짓말까지 꾸며 여론에 내들었다.

사실그대로 말하면 그때 겁에 질려 쓰아낸 놈들의 눈먼 포탄파편 하나가 들판에 있던 한마리 황소의 뒤다리에 박혔을 뿐이다. 아무리 당한 폐전이 참혹하고 창피하다고 해도 시인할것은 스스로 시인하여야 한다. 불바다에 잠겼던 연평도의 그날을 상기하기가 그러도 피로우면 다시는 도발을 하지 않으면 될것이다. 벌어진 사태의 엄중성은 이 반공화국대결망동이 창외대의 직적적인 조종하에 벌어졌다는데 있다. 해외행사에서 돌아오자마자 청와대직접자는 직접 써보낸 《영성메세지》라는데서 당시 신분을 놓아다가 즉사한 도발자들에게 그 무슨 《메세지》를 표시하면서 《북한도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완벽한 군사대비태세확립》을 거론하는것으로 호

전망들의 대결망기를 극구 고취해왔다. 이로써 남조선당국은 여전히 적대와 대결로 일관된 《대북정책》 추구가 저들의 일관된 《원칙》임을 다시금 명백히 드러냈다. 지금은 결발된 열마디, 백마디의 말치레보다 진정어린 하나의 실천행동이 더 중한 매이다. 그러는 대화를 떠들면서 뒤에서는 대결에 피는이 되어 미쳐나뛰는것보다 더 후안무치한것은 없다. 불과 남사당이 여러가지 현안이 일정에 올라있는 시점에서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이 모든 대결망동이 어떤 후과를 초래하겠는가 하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주시해볼 것이다. **주제104(2015)년 11월 24일 평 양**

남나, 비옥, 알생산과 새끼 생산 등의 용도에 맞는 첨가제를 평평 생산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연구 사업을 잘하면 먹이첨가제를 자체로 생산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당의 은성속에 일떠선 자강첨가제공정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10여가지나 되는 짐점승들이 기계제생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조업한지 오래지 않았던 공장에서 수백의 짐점승들이첨가제 생산하여 경제제자공정, 홍주 닭공정, 강계오리공정을 비롯한 한도의 현대적인 축산기계를 사, 곤들의 여러 축산단위들에 보내주었다. 계양, 혼합, 포장공정의 정비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공장에서는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여 돼지, 닭, 오리 첨가제용료생산을 맡은 작

## 축산단위들이 덕을 볼수 있게

자 강 첨 가 제 공 정 에 서  
남나, 비옥, 알생산과 새끼 생산 등의 용도에 맞는 첨가제를 평평 생산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연구 사업을 잘하면 먹이첨가제를 자체로 생산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당의 은성속에 일떠선 자강첨가제공정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10여가지나 되는 짐점승들이 기계제생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조업한지 오래지 않았던 공장에서 수백의 짐점승들이첨가제 생산하여 경제제자공정, 홍주 닭공정, 강계오리공정을 비롯한 한도의 현대적인 축산기계를 사, 곤들의 여러 축산단위들에 보내주었다. 계양, 혼합, 포장공정의 정비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공장에서는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여 돼지, 닭, 오리 첨가제용료생산을 맡은 작

업반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효소제 작업반에서는 설비들을 기술규격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다루면서 매일 효소제생선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미방원소작업반 로동자들은 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여 여러가지 화합물생선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실험실에서는 원료와 미방원소의 품질검사와 배합비율을 정확히 지키도록 하면서 염류용액생선에 깊은 관심을 돌려 화합물생산을 믿음직하게 뒤받침하고있다. 원성공정을 지켜낸 로동자들은 종합조종실에서 16개나 되는 자동조종대에 쌓이는 원료들의 계량, 혼합공정감을 책임적으로 하여 첨가제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동 세 중**

업반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효소제 작업반에서는 설비들을 기술규격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다루면서 매일 효소제생선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미방원소작업반 로동자들은 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여 여러가지 화합물생선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실험실에서는 원료와 미방원소의 품질검사와 배합비율을 정확히 지키도록 하면서 염류용액생선에 깊은 관심을 돌려 화합물생산을 믿음직하게 뒤받침하고있다. 원성공정을 지켜낸 로동자들은 종합조종실에서 16개나 되는 자동조종대에 쌓이는 원료들의 계량, 혼합공정감을 책임적으로 하여 첨가제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동 세 중**

## 가을철뽕발비배관리를 실속있게

### 평안북도의 고치생산사업소에서

가을철뽕발비배관리를 실속있게 평안북도의 고치생산사업소에서  
평안북도의 고치생산사업소들에서 가을철뽕발비배관리를 실속있게 짜고들면서 다음해생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미 있는 뽕밭을 잘 관리하는 한편 새로운 뽕밭을 늘 조성하여 누에고치생산량을 늘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의 잠업부본 일꾼들은 모든 고치생산사업소들에서 가을철뽕발비배관리를 력량을 집중하고 다음해생산준비를 신속하게 해나가기 위하여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두고있다.

가을철뽕발비배관리를 실속있게 평안북도의 고치생산사업소에서  
은 전투장에서 결린 문제들을 풀어주고 후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청년들을 위훈창조로 적극 떨쳐주고있다. 동림고치생산사업소에서는 종업원들을 발동하여 11월 15일 까지 계획하였던 뽕발비로주기를 전부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리고 마침동안에 40t의 소석회 기초하여 수백의 생물활성비료를 생산할수 있는 준비도 원만히 갖추어놓았다.

가을철뽕발비배관리를 실속있게 평안북도의 고치생산사업소에서  
은 전투장에서 결린 문제들을 풀어주고 후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청년들을 위훈창조로 적극 떨쳐주고있다. 동림고치생산사업소에서는 종업원들을 발동하여 11월 15일 까지 계획하였던 뽕발비로주기를 전부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리고 마침동안에 40t의 소석회 기초하여 수백의 생물활성비료를 생산할수 있는 준비도 원만히 갖추어놓았다.

가을철뽕발비배관리를 실속있게 평안북도의 고치생산사업소에서  
은 전투장에서 결린 문제들을 풀어주고 후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청년들을 위훈창조로 적극 떨쳐주고있다. 동림고치생산사업소에서는 종업원들을 발동하여 11월 15일 까지 계획하였던 뽕발비로주기를 전부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리고 마침동안에 40t의 소석회 기초하여 수백의 생물활성비료를 생산할수 있는 준비도 원만히 갖추어놓았다.

가을철뽕발비배관리를 실속있게 평안북도의 고치생산사업소에서  
은 전투장에서 결린 문제들을 풀어주고 후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청년들을 위훈창조로 적극 떨쳐주고있다. 동림고치생산사업소에서는 종업원들을 발동하여 11월 15일 까지 계획하였던 뽕발비로주기를 전부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리고 마침동안에 40t의 소석회 기초하여 수백의 생물활성비료를 생산할수 있는 준비도 원만히 갖추어놓았다.



발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이밖에도 태천고치생산사업소를 비롯 한 모든 고치생산사업소들과 잠업중사업소들에서 가을철뽕발비배관리를 힘있게 다그치면서 다음해 누에고치생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해나가는 당의 전투적소리를 높이 받들고 도의 잠업부본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다음해에도 고치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킬 열의와 열정을 높여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송 창 윤**





#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남조선강점정책과 북침야망을 버려야 한다

1975년 11월 유엔총회 제30차회의 결의가 채택된 때로부터 어언 40년 세월이 흘렀다.

그 기간에 지구의 장래를 어떻게 하던 동서유럽의 냉전은 종식되고 세기가 바뀌었으며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시대와 문명도 훨씬 더 발전하였다. 사람들과 국가들의 사고와 활동방식도 달라졌고 국제관계도 보다 다양해졌다.

그러나 조선과 미국사이의 불미스러운 판례에서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있다. 미국은 완전히 과거산고 거덜이 날대로 난 내조선강점대시정책을 아직도 집어차지 않고 있다. 그의 집중적인 발로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지 않고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고있으며 우리의 평화협정제결에 응해나서지 않고있는것이다.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는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며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킬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것을 정전협정의 실제적당사자들에게 호소하였다.

절대다수 유엔성원국들이 조선에 관한 결의를 적극 지지함으로써 조선을 무조건 리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것은 그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수 있는 지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제안이 담겨져있기때문이다.

당시 미국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할데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구를 외면할수 없어 정전을 판리할수 있는 다른 장치가 마련되면 1976년 1월 1일까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수 있다는 내용으로 된 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미국이 울며 겨자먹

## 《유엔군사령부》해체와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는 현시대의 절박한 요구

기로 《유엔군사령부》의 조건부해체를 들고나온것은 세계의 규탄배격과 국제적외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려지책에 불과한것이였지만 다른 한편의 요인은 《유엔군사령부》가 철저히 비법적이고 조선반도의 긴장적화를 조성하는 근원으로 된다는것을 감히 부인할수 없었던과 관련된다.

《유엔군사령부》는 철두철미 미국이 강권과 전횡을 부리면서 불법비법으로 꾸며낸 황당한 남조선이다. 유엔헌장 제27조에 의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 상임리사국체제의 지지를 포함할 7개 리사국(당시)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채택될수 있다. 그런데 《유엔군사령부》설치를 승인하였다고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4(1950.0)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리사국인 소련이 참가하지 않은 기회에 채택된것이였다. 이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4호 자체가 유엔헌장을 무효화한 불법비법의 결의라는것을 특독히 보여주고있다.

결의내용을 보아도 조선전쟁에 유엔성원국들이 무력을 파병하고 그 무력을 《미국지휘하의 《연합사령부》》에 소속시키며 《미국이 그 사령관을 임명》하도록 권고하고 그 사령부가 유엔기발을 사용하도록 《위인》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현재 《유엔군사령부》가 유엔관할의 기구라면 그 사령관은 마땅히 유엔이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역대적으로 《유엔군사령관》은 미국정부가 임명하곤 하였다. 《유엔군사령관》은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이다. 《유엔군사령부》에는 실재상 미국

을 제외한 다른 유엔성원국들의 무력이 들어가지 않다. 남조선강점 미군만이 있다.

《유엔군사령부》가 유엔관할하에 있다면 재정적부담도 마땅히 유엔이 결처하여야 한다. 하지만 유엔은 그 재정을 부담하지 않고있다. 이처럼 조작성위나 군사체계, 재정 문제 등을 놓고보아도 《유엔군사령부》는 철저히 미군사령부이다.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의 군대가 아니라 미국이 지휘하는 미군사령부이다. 《유엔군사령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자기의 통제하에 있는 부속기구로 설립한것이 아니며 그것은 미국의 지휘하에 있게 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1998년 12월 30일 이란 유엔사수총장도 미국이 조선전쟁에 파견한 무력이나 그 사령부에 대해 《나의 선임자들중 그 누구도 유엔의 이름과 결부시키도록 그 어느 나라에도 허락한적이 없다.》고 밝혔다. 2004년 7월 27일과 2006년 3월 6일 유엔대변인은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의 군대가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군대》라고 확인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철두철미 유엔 밖에 있으면서 《유엔》의 말을 쓰고있는 미국의 전쟁대우이다. 미국은 《유엔군사령부》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떠들어대고있다. 하지만 반대로 그를 해체하고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키어야만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지나온 나라들이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에 《유엔군사령부》와 미군이 존재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평화는 항시적으로 위협당하고 전쟁위험은 나날이 증대되어왔다.

조선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정전협정을 로골적으로 위반하면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들을 마구 끌어들이고 남조선에 체계화한 핵무기기로, 핵전초기지로 전변시켰다. 또한 남조선피괴들과 함께 해마다 북진전연습수동에 미쳐달리면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다.

《유엔군사령부》, 남조선강점 미군사령부가 이 모든것을 작전주도하고 집행하였다. 그 결의를 리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있는 미국은 아직까지 어느것 하나 실행하지 않고있다.

지금 미국은 허울만 남았던 《유엔군사령부》를 부활시켜 다국적무력을 망라한 군사기구로 만들려고 획책하고있다. 《유엔군사령부》를 아시아판 나토의 모체로 삼으려는것이 미국의 기도이다. 최근런던 미국이 남조선과 회담하고 야합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함정군사연습과 같은 대규모합동군사연습들을 벌일 때마다 일부 《유엔군사령부》 성원국들의 무력이 끌어어들어오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강박에 못이겨 마지못해 핵전쟁수동에 가담하는것으로 하여 파견하는 무력은 타당성 없이

고 역활도 미미하다. 핵전쟁수동

의 체를 잡고 정세를 긴장격화에로 몰아가는 기본장본인은 여전히 남조선강점 미군이다.

수십년전에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조선반도정세는 돌발적인 사건이나 충돌이 일어나도 정전이 리질수 있는 위험한 상태로 빠져들곤 한다. 조선반도의 정전상태를 관할통제 하던 군사정전위원회와 그를 감독하던 중립국감시위원회가 있던 시기는 옛날로 되여버렸다.

통제를 벗어난 정전은 임의의 시각에 일적으로 넘어가거미이다. 자그마한 우발적사건이 상시에 일촉즉발의 교전직전상태로 번져오던 올해 8월사태는 제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는 현 정전협정으로 더 이상 충돌과 전쟁위험을 막아줄수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증해준다.

오늘에와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수 없는 유일한 길은 다름이 있지 않다. 그것은 미국이 유엔총회 제30차회의 결의를 그대로 리행하는데 있다.

미국의 집권세력은 가끔 저들에게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없다고 광고하고있다. 그 말이 진실이라면 미국은 마땅히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평화협정제결에 나서야 한다. 《유엔군사령부》를 부활시켜 남조선강점 미군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려는 미국의 책동은 집권세력에게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할 마음이요 물만큼도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우리의 《위협》을 결코고 있고 쌍방이 호상 상대방을 신뢰하

게 될것이다.

미국은 지금 우리더러 비핵화를 하라코 하면서 저들은 남조선에 핵전력폭격기와 핵항공모함을 빼앗아들이고있다. 핵전력폭격기와 핵항공모함은 말그대로 핵전쟁의 기본타격수단들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핵전력타격을 계속 기도하고있는 조건에서 비핵화란 말도 되지 않는다. 비핵화문제는 조선반도평화보장에 우선순위, 전제조건으로 필수이다.

우리 나라와 미국은 다같이 유엔성원국들이며 유엔헌장을 준수할의무를 지니고있다.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총의가 담긴 유엔총회결의를 외면한다면 유엔의 민주화와 세계의 평화는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다.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리사국으로서의 체면을 세우자면 마땅히 유엔총회결의를 존중해야 한다.

동북아시아에서 협의의 구도는 급격히 변하고있다. 《유일초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지위가 밀려들며 위흔들리고있다는것은 자라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미국의 집권세력이 《유엔군사령부》와 미군을 남조선에 못박아두고 조선반도정세를 긴장격화에로 몰아가면서 새 전쟁도발에 매여달리는 행위는 미국에 상상할수 없는 파괴적수파를 몰아오는것으로 될것이다.

유엔도 특정한 국가가 전횡을 부리면서 《유엔》의 간섭을 결코 한 나라, 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히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 시기에 버려졌던것처럼 앞으로도 유엔총회 제30차회의 결의를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갈것이다.

리 경 수

###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체결이 담보

### 라틴 아메리카의 우리 공화국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을 지지

라틴아메리카의회가 12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우리 공화국정부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글은 라틴아메리카의회는 미국의 끊임없는 위협속에서도 뜻까지 나아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대응을 보낸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정전협정을 평화

### 우리 공화국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을 지지

70차회의에서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에서 전쟁발발위험을 제거하고 항구적인 평화적환경을 마련할 절박한 요구로부터 유엔총회

### 여러 나라 정당, 단체 성명 발표

베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14일 《미국은 조선의 평화협정체결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없다. 미국이 조선의 평화협정체결주장이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것은 현실을 외무하는 꾀변이다. 조선은 지난 시기 여러차례 걸쳐 미국에 평화협정을 체결할것을 제안하였으나 유엔총회 제70차회의에서도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할데 대한 공동명제대한 립장을 다스금 천명하였다.

###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과 지배를 영구화하려는 미국 영구단체 인터넷에 글 게재

영국조선연구회회가 9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전쟁의 근원을 들어내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지금으로부터 37년전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과 지배를 영구화하고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남조선 《연합군사령부》를 조작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에서 파쇼독재 《정권》들을 조작하고 그것을 무력으로 뒤받침해준것은, 통치배들을 매국과 반역, 인민탄압으로 부추겼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조선민족에게 핵전쟁위험을 몰아오고 있는것도 다름아닌 미제침략군이다. 미국남조선 《연합군사령부》는 미국의 현치침략전쟁기구이다. 조선에 반대하여 해마다 벌이는 《키 리졸브》, 《독수리》, 《유리 프리덤 가디언》 등 대규모 합동군사연습들도 이 침략전쟁기구에 의해 강행되고있다. 오를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강점정책과 북침전쟁도발책동은 극악한 침미사태대국집단인 남조선당국에 의해 더욱 조장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온 민족의 연결 같은 반데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떠들면서 미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애걸하고있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짓밟고 북남관계를 파괴하며 정세를 전쟁정경으로 몰아오고있다. 지난 2일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은 서울에서 47차 미남조선연례대외회의를 벌여놓고 《북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 방어, 교란, 파괴》하기 위한 《SD작전개념》의 리행지침을 합의하였다. 이로써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의 북침전쟁책동은 더욱더 호

###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과 지배를 영구화하려는 미국 영구단체 인터넷에 글 게재

《유리 프리덤 가디언》 등 대규모 합동군사연습들도 이 침략전쟁기구에 의해 강행되고있다. 오를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강점정책과 북침전쟁도발책동은 극악한 침미사태대국집단인 남조선당국에 의해 더욱 조장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온 민족의 연결 같은 반데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떠들면서 미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애걸하고있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짓밟고 북남관계를 파괴하며 정세를 전쟁정경으로 몰아오고있다. 지난 2일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은 서울에서 47차 미남조선연례대외회의를 벌여놓고 《북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 방어, 교란, 파괴》하기 위한 《SD작전개념》의 리행지침을 합의하였다. 이로써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의 북침전쟁책동은 더욱더 호

###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과 지배를 영구화하려는 미국 영구단체 인터넷에 글 게재

《유리 프리덤 가디언》 등 대규모 합동군사연습들도 이 침략전쟁기구에 의해 강행되고있다. 오를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강점정책과 북침전쟁도발책동은 극악한 침미사태대국집단인 남조선당국에 의해 더욱 조장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온 민족의 연결 같은 반데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떠들면서 미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애걸하고있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짓밟고 북남관계를 파괴하며 정세를 전쟁정경으로 몰아오고있다. 지난 2일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은 서울에서 47차 미남조선연례대외회의를 벌여놓고 《북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 방어, 교란, 파괴》하기 위한 《SD작전개념》의 리행지침을 합의하였다. 이로써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의 북침전쟁책동은 더욱더 호

### 미국의 정탐행위 규탄

베네수엘라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로스가 18일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정탐행위를 규탄하였다. 그는 미국의 국가안전보장국과 중앙정보국 그리고 베네수

### 미국의 정탐행위 규탄

엘라주대 미국대사관이 지난 10일동안 베네수엘라국영원유 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개인 자료를 탐한 사실이 이선 지극히 안전보장국으로 유엔 노우멘에 의해 폭로되었다고

### 미국의 정탐행위 규탄

말하였다. 미국의 그러한 행위는 베네수엘라영공범위에서 혼란을 일으켜 불리부르침들을 파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까뻑하고 그는 미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것을 해당 부문에 지시하였다.

### 침략적인 야합이 중동평화를 파괴한다

최근 백악관에서 미국대통령 오바마와 이스라엘수상 네타냐후가 회담을 가졌다. 회담

### 침략적인 야합이 중동평화를 파괴한다

러한 속에 오바마와 네타냐후가 이마를 맞대고 앉은것이다. 네타냐후와 만난 자리에서 오바마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특별한 동맹관계를 맺고있다는데 대해 강조하면서 두 세력사이의 협력에 대해 격려했다. 또한 미국의 군사적지원이 이스라엘의 안보뿐아니라 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주요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원의 확대가능성도 시사하였다. 네타냐후 역시 미국과의 관계의 《중요성》과 《협력》에 대해 무리이 이란의 핵무기개발을 인정하는 것으로 될것이라는나 워니 하면서 서 불만을 드러냈다. 미국이 안보문제를 재확인하면서 달랐을 때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미국이 이란에 양보하고 저들의 리익을 해진것처럼 양말을 부렸

### 침략적인 야합이 중동평화를 파괴한다

것을 충분히 증명하였다. 1947년 11월에 유엔총회 제2차회의에서 팔레스티나를 분할하여 아랍인국가와 유대인 국가를 세출에 대한 비법적인 《결정》을 채택해 한 미국은 이듬해 5월 이스라엘《국가》를 조작하여 중동침략의 교두보, 돌격대를 마련하였다. 이때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의 결합은 지역

### 침략적인 야합이 중동평화를 파괴한다

의 확립을 방해해나서고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결합은 지역

###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 로 씨 야에서

로씨야의부상상이 최근 련방평의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반테로투쟁에서 노력을 할것에 관한 결의 채택이 유엔안보리사회의서 지연되고있는데 대해 비난하였다. 로씨야가 이러한 결의를 채택할것을 제의한데 대해 언급하고 그는 결의채택의 필요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안보리사회에서 이 파장이 2개월째 지체되고있다고 까뻑했다.

#### 아프리카나리들에서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최근 아프리카나리들의 보건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아프리카대회의 보건부문 전문가들이 참가한 회의에서는 지역 나라들과 공동체들이 긴밀히 협조하여 안과 당뇨병을 비롯한 각종 비전염성질병과의 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스위질랜드에서 스위질랜드에서 말라리아방

#### 아프리카나리들에서

자사업에 힘을 넣으고있다. 나라이에서는 주민들에게 모기를 공공하고 말라리아환자들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제제를 제공했다. 결과 2013년에 말라리아환자가 1995년의 9 700명으로 243%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앞으로 나라에서 말라

#### 아프리카나리들에서

리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필리핀과 메히코가 17일 반마약투쟁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하며 판관, 세관분야에서 협력할데 관한 문건들을 조인하였다. 이에 앞서 16일 로씨야와 중국은 에네르거게발리용분야에서 쌍무협조를 확대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필리핀과 콜롬비아가 17일 반마약투쟁에서 호상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앞서 16일 중국과 파키스탄은 두 나라사이의 전략적동맹자 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국회 간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아프리카나리들에서

필리핀과 콜롬비아가 17일 반마약투쟁에서 호상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앞서 16일 중국과 파키스탄은 두 나라사이의 전략적동맹자 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국회 간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아프리카나리들에서

필리핀과 콜롬비아가 17일 반마약투쟁에서 호상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앞서 16일 중국과 파키스탄은 두 나라사이의 전략적동맹자 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국회 간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아프리카나리들에서

필리핀과 콜롬비아가 17일 반마약투쟁에서 호상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앞서 16일 중국과 파키스탄은 두 나라사이의 전략적동맹자 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국회 간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